

하늘길 열린 프랜차이즈 광폭행보... 글로벌 'K외식' 깃발

국내시장 포화, 엔데믹 등에 해외사업 공격적으로 나서 BBQ·교촌, 해외점포 확대 빵·떡볶이 업계 등도 가세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전환이 이뤄지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해외 시장 개척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국내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에 달하자 해외에서 매장 수를 늘려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를 운영하는 제너시스BBQ는 글로벌 사업에 힘주고 있다.

BBQ는 올해 매사추세츠주 노스 린시, 캘리포니아주 월넛과 폴랜드 하이츠에 연이어 신규 매장을 오픈하며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 총 25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들의 K-푸드와 한국 문화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BBQ 글로벌 외식 사업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

BBQ 측은 "전 세계 57개국에 진출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며, 오는 2025년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5만 개 점포



교촌치킨 두바이 1호점 '데이라시타센터점' 오픈식을 기념하는 모습. /교촌에프앤비



대만 타이페이시의 BBQ 매장에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모습. /제너시스BBQ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진출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BBQ는 지난 2016년부터 일본 외식 기업인 와타미와 마스터프랜차이즈계약을 맺고 일본 외식 시장에 진출했다. 현재까지 21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류 붐을 통해 브랜드가 알려진 만큼 올해 100호점 매장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BBQ 측에 따르면 도쿄, 오사카, 치바, 사이타마, 시즈오카 등 일본의 다양한 지역에서 매장 오픈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교촌치킨도 해외 사업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는 중동과 미국 시장 확장에 주력한다.

2006년 미국을 시작으로 2013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 MF(마스터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진출하며 해외 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는 교촌은 4월말 기준으로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두바이 등 6개국에서 6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해외사업 매출은 170억원으로 전년 대비 41% 늘었다.

교촌은 최근 미국 하와이에도 매장을 오픈했다. 향후 5년내 해외 매장수를 50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해외 사업 매출 비중을 전체 매출의 1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떡볶이 무한리플 프랜차이즈 두끼는

해외 진출 7년 만에 100호점을 돌파했다. 베트남,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총 7개국 100개 매장을 달성했다. 2016년 대만 1호점 이후 7년 만에 이룬 성과다.

현재 미국 동부지역과 호주 현지 마스터 프랜차이즈 파트너와 함께 신규 매장 오픈을 준비 중이며 해외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표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도 글로벌 영토 확장에 공들인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푸레주르는 2004년 미국 진출을 시작으로 현재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몽골·캄보디아 등 6개국에서 340여 개 매장을 운영 중

이다. 해외에 진출한 프랜차이즈 가운데 드물게 미국에서 4년 연속 흑자를 내고 있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동남아시아·중동·유럽 등으로 영토를 넓히는 중이다. 현재 7개국에서 44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2004년부터 진출한 미국과 중국에서는 사업이 안정 궤도에 올라섰다. 두 나라의 가맹점 비율은 각각 70%, 80%에 달한다.

파리바게뜨는 미국과 중국에 이은 제3의 글로벌 전략 지역으로 동남아를 점찍고 사업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현지 파트너사인 HSC그룹과 조인트벤처를 설립해 캄보디아 프놈펜에 1호점을 냈다. 또 같은해 11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선보인 인도네시아 1호점은 하루 평균 방문객이 600명을 넘고 매출은 개점 전 예상치의 3배를 웃돌고 있다. 또 올해 안에 캐나다와 영국에 매장을 내기 위해 후보지를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외식 시장의 포화와 엔데믹 전환이 맞물리면서 기업들이 해외 사업에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원식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쌍용차 토레스 티저 이미지.

쌍용차 명운 걸린 '토레스', 정통 SUV 구현

신차 '토레스' 티저 이미지 공개 무쏘처럼 강인한 정통 스타일링 차박 등 아웃도어 라이프에 제격 토레스 앞세워 경영 정상화 속도

쌍용자동차가 경영정상화의 신호탄이 될 '무쏘DNA'를 계승한 신차 '토레스'를 공개했다.

쌍용차는 프로젝트명 J100으로 개발해 온 신차의 차명을 '토레스'로 확정하고, 티저 이미지와 영상을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토레스는 무쏘처럼 정통 SUV 이미지에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을 적용했다. 특히 쌍용차 고유의 헤리티지 '강인하고 안전한 SUV'를 바탕으로 새롭고 모던한 정통 SUV 스타일링을 적극 구현했다.

토레스는 세상의 끝, 남미 파타고니아 남부의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절경이라 불리고 있는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에서 따왔다. 이 지역은 유네스코의 생물다양성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에서 죽

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세계 10대 낙원으로 꼽히며 세계 모험가들의 버킷리스트 1순위로 꼽힌다.

사측은 광활한 대자연의 경이로움과 생물다양성 보존 등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토레스를 통해 모험과 도전정신, 자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의 가치를 구현한 정통 SUV라는 의미에서 차명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티저 이미지에 공개된 전면부는 버티컬 타입의 라디에이터그릴이 적용돼 강인하고 와일드한 이미지를 구축했다. 후면부는 스포어타이어를 형상화한 테일게이트 가니시(무늬)를 적용해 정통 SUV 이미지를 연출했다.

또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기능과 공간 활용성을 갖추고 있어 캠핑·차박(차+숙박) 등 레저 활동에 모자람이 없어 도심형 SUV와 차별화된 정통 SUV 영역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사측은 자신했다.

특히 쌍용차는 토레스 출시와 함께 경영 정상화에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

이다. 쌍용차는 이날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토레스의 성공적 론칭을 통해 판매 확대와 함께 한층 더 빠르게 재무구조를 개선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앞서 지난달에는 대리점협의회와 토레스의 성공적 론칭 및 판매 확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쌍용차는 올해 1분기에 영업손실 309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847억원)보다 손실액이 538억원 줄었다.

쌍용차 관계자는 "세분화 돼가는 SUV 시장에서 토레스는 준중형 SUV 코란도와 대형 SUV 렉스턴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쌍용차는 레저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제품을 개발해 실용적이면서도 고객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선보일 예정이다. 쌍용차는 다음 달 토레스의 사전계약을 개시할 예정이며, 시장상황을 고려해 출시 일정을 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

아이오닉5, 美서 우버이츠 '자율주행 배송'

모셔널, 우버와 손잡고 배송 '시동' 자율주행차 신뢰성 등 혁신 기대감

현대자동차그룹과 미국 애플티브의 합작회사인 자율주행 기업 모셔널이 우버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 모니카에서 우버이츠 고객을 위한 자율주행 배송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모셔널의 완전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에는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가 사용된다.

모셔널은 지난해 12월 업계 최초로 우버와의 파트너 협력을 체결해 자율주행 배송 시장 진입을 알렸다. 모셔널과 우버는 자율주행차의 높은 안전성, 비용효율성, 신뢰성을 통해 배송 혁신을 불러올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미국 자동차공학회(SAE) 자율주행 기준 레벨 4에 해당하는 모셔널 차량이 배송에 사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셔널과 우버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여러 지역으로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자동화 배송 모델을 공동 개발하고 제공할 예정이다. 양사는 이번

파일럿 테스트를 시작으로 향후 사업을 위한 토대를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모셔널은 현대차 아이오닉5를 자율주행 배송이 가능하도록 개조했다.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식당과 소비자 사이의 모든 접점을 수개월 간 연구했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대규모 테스트를 진행했다.

가맹점 직원은 자율주행차가 도착하면 알림을 받고 지정된 픽업 장소에서 주문받은 음식을 특수 설계된 뒷좌석 칸에 싣게 된다. 이후 차량이 배달 장소에 다르면 고객은 알림을 받고 우버이츠 앱으로 자동차 문을 안전하게 잠금 해제한 뒤 주문한 음식을 수령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모셔널과 우버는 향후 기술 통합, 소비자 수요, 사용자 편의, 자율주행 배송 기능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연구가 진행되면 보다 원활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모셔널의 자율주행차의 광범위한 활용 사례를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성운 기자

제주항공 "여름휴가 몽골로 떠나세요"

제주항공이 올 여름 여행지로 몽골을 추천했다. 최근 몽골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관광 목적으로 몽골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에게 최대 90일까지 무사증 방문을 승인해 한국인 관광객이 여행하기 좋은 곳이라고 분석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4월 운수권 배분에서 몽골 취항 권리를 획득한 바 있다.

몽골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를 대폭 완화해 코로나19 백신접종 여

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또 필수였던 비자 신청 의무까지 없었다.

올해 여름부터는 우리나라와 몽골을 잇는 하늘길 또한 대폭 넓어졌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몽골은 이미 오래전부터 매력적인 여행지로 입소문이나면서 많은 한국인 여행객들이 찾던 곳이다.

/허정원 기자 zelkova@